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naum

모든 게 자기 짓 아니니 집착 마세요

15면에서 계속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어떤 원천에서 끌어내서 인도할 수 있느냐가 결국 종교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후자에 속한 사람으로서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 원천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 '불교'라는 단어는 종교라는 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란 '佛' 자체가 바로 우주와 더불어 만물만생의 '생명' 자체가 '佛'입니다. 하느님처럼 풀 한 포기 생명이라고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다 '佛'입니다. '佛'라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움직여지고 일게 되고 느끼고 배우면서 발전하고 가는 지금 현재 생활과 더불어 그냥 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라는 단어가 어느 한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불교'라는 그 자체가 그대로 우리의 생활이요 세계적인 생활이요 우주적인 생활이요, 과거·미래·현재가 같이 돌아가는 생활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부처님께서만이 아닙니다. 사대성인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먼저 믿어라.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네 뿌리를 믿어가지 않으면 이 우주 전체와 삼천대천세계가 같이 호흡을 하면서 통일이 되면서 같이 공해서 돌아가지, 믿지 못한다면 돌아가지는 그 도리를 모르느니라 하시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육신 속에 마음이 벗어나서 우주 삼라만상과 함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체가 없는 마음 이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들고도 남음이 있고 보고도 남음이 있고, 듣고도 남음이 있고 알고도 남음이 있고 모두 실천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육신 속에서 마음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유권을 얻지 못해요. 즉 말하자면 지구라는 이 자체 공기 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기주머니에 매달려서 그 공기주머니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공기주머니 안에서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계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어쩔지 내일 어쩔지 그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자기가 못났든 잘났든 자기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부터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무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없고 우주도 없고 모두가 무효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구 세상이 있구 우주가 있구, 과거 미래 현재가 있구 이런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땐 종교란, 종교라는 이름만 지어놓으면 종교인을 아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종교라고 이름을 짓기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자기는 자기 몸통이 자기인줄 아는데 자기 몸통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몸통이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를 이끌어가는 기사, 즉 운전수가 참자기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참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그러야지 공덕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하면 운전수하고 차하고 몸과 바가 돼야 걸림이 없고 자유롭고, 차하고 운전수하고 몸과 바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다면 이런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 세상은 물질세계로써 만이 고도로 발달이 됐다 한다면 정신세계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정신세계로써만이 뒷받침이 될 수 없다면 오래 위에 성을 쌓는 거와 같습니다. 운전수와 차가 몸과 바가 돼서 돌아가듯 정맥 동맥이 같이 몸과 바가 돼서 돌아가듯 우리 인간도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몸과 바가 되어야만 바로 자유권을 얻을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화목을 가져올 수가 있고 싸움이 줄어들고 적대하는 기운이 없어지고 강도가 없어지고, 모두 그런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체 미생물에서부터 일체 만물만생이 전부 통일이 됩니다. 우주의 근본과 인간의 근본과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저 나무들은 나무들대로 같이 사랑을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꽃이

피구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모든 사람들을 되먹이고도 되남고 되먹이고 되남습니다. 봄이면 나와서 다 먹고 그 이듬해 봄이면 또 나오니까. 그러듯이 그 모든 끊어지지 않는 진리가 무공무진하고 이렇게 좋은 법, 우리의 생활이 진리이거늘 어떻게 네종교 내종교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진리인데.

한마음공부 완벽한 수행인지...

저는 올해 스물여섯살된 청년으로 해군 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세계라든지 마음을 닦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실제 모습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저 자신의 못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고 그걸 잘 안될 때는 절망도 합니다. 그간 슬픈 방편들을 조금씩 경험하고 그랬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 앞에는 왜 그렇게도 방해되는 것들이 많은지...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단전호흡'에 참으로 관심이 많았고 현재도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평생을 수행하면서 보내려고까지 생각했는데 지금의 현실세계를 살면서 더군다나 저의 생활 환경을 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차선책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생활가운데서도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수 있는 '방학'에 매력을 느낍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단전호흡'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은 아니나 현실에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대행스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으로도 마음속으로 많은 힘을 얻는 느낌입니다. 궁금한 것은 첫째, 단전호흡도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둘째, 한마음을 믿고 놓는 수행법 만으로도 빈틈없는 완벽한 수행체계가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릴들에게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는 것처럼 땅 속에서 금이 나오는 원리도 그러합니다.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금이 뭘 수도 없고 금을 뭘 수도 없고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속으로서의, 이 세계가



그림 · 최주현

주시요! 나 뭘 좀 되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연방 붙어가고 앉아가고는 상대를 믿고 돌아가니 그 영령들이 한 사람 안에, 마음은 하나인데 어디서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또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는 그 한 몸통이 속에서 둘이 사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뭘 좀 할려면 이쪽에서 쫓기고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미쳤다고 그러죠. 그렇고자, 그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질 않아요. 여러분은 걸레를 빨아서 쪽 짜면 아무데나 뽕개치는데 만약에 금이라면, 금이라면 장 속에 갖다 넣는다고 아난났겠지요. 걸레 뽕개치듯 그렇게 금도, 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장 속에 넣긴 하되 걸레 짜서 버리듯이 착을 두지 말라 이 소립니다. 모든 게 자기 짓이 아니예요. 자기는 편리일 뿐이고 바로 생명

려분의 행동이 도깨비 장난과 같고 귀신 장난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놓는 것도 그 부처님을 발판으로 삼아서 깨우치라 모신 것이 부처님 형상을 믿으라고, 귀신 믿는 게 아니라구 모셔놓고 점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법당에 들어가면 그 형상은 내 형상과 틀이 아니고, 그 마음도 틀이 아니고, 그 생명도 틀이 아닌 까닭에 통째로 '주인공' 한겁니다.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고 빛이 되게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기 걸레가 속의 심부름꾼이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되 타의로 믿고 다닌다면 백날 있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을 선으로 돌리는 방법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도 몰라서 한 것이요 해야하는 피치못할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됩니다. 이때 악을 선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며 선과 악이 틀이 아니라면 선으로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해답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주 도둑을 맞아요. 이런 실재로 있었던 얘기로요. 도둑질 하는 깐새는 알고 있는데 물증이 있어야 어떻게 하죠. 물증은 못 잡았어도 두 사람이 그러는걸 알고 있어서 하루는 그 두 사람을 불러다가 관리인으로 책임을 지웠어요. "너희들 밖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도둑맞지 않게끔 해라." 했거든요. 그날부터 도둑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체로유니까? 그거를 사람을 세워서 물증을 잡아라 이려고 했으면 그 회사가 뭘 끝이 됩니까, 점점, 암살도 생기고 뭘 별짓 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생기고 원수가 되고 또 보복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점점 그냥 끝 간데 없이 따라다니는 거죠. 복수가, 슬기로운 사람은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저놈 참 나빠, 능숙하지 못해서 알고 잘 못하는 데다 저거하니까 그만두게 해야 되겠어." 이런다면 자기는 너그럽지 못해서 업보가 생기는 거죠. 도둑질을 해가도 겁 안난다는 건 뭘 뜻이냐면, 사람을 죽였다 해도 겁 안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한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가도 도둑질 한 것만큼 그 댓배를 불러내놔야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누구니까 겁나지 않는 거죠. 가져갔어도 그것은 스스로 자기한테 배로 해가 오는 거니깐요. 바로 사람이 양심이 언제나 자기를 살리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체로유면 살고 지체로유지 못하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니까? 아, 남전스님은 약속은 해놓고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뭘 꼴이 됩니까? 그래서 삼시간에 두동강이가 낫죠. 그랬는데 의술했던 조주스님이 저녁에 들어오니까 남전스님이 낮에 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스님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신발 한짝만 머리 위에다 얹고는 획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에 고양이를 죽인 것이 율겠습니까? 살려줘야 율겠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관문이요, 그 얘길 했는데 왜 신발 한짝을 머리 위에 이고선 획 나가버렸냐는 것이 또 관문이요, 세상은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남전스님은 고양이를 삼시간에 죽였는가?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는 것이 또 관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둘째, 셋째 관문입니다. 말은 함이 없이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함이 없이 대답하는 문제가 있고, 흥대를 내서는 절대 안되고, 마음에서 우러져 나온다면 함이 없이 하는 작용으로써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모르면서 전자에 종사들이 대답

자기뿌리 믿지않고 타의형상 믿는건 도깨비 장난과 같아

을 했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서 한다면, 그거는 큰 업보가 될 것입니다.

相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상을 뛰어 넘는 것입니까? 건강하고 바르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저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관습에 의해서 망상이라고 그러지,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목석이지 그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서 그대로 우리는 좌선을 하는 겁니다.

몇 시간을 앉았다고 해서 좌선이 아닙니다. 또 좌선을 하고 일어나도, "아휴, 오늘은 하루종일 좌선을 8시간 했어." 이렇게 아주 잘한 것처럼 그러지만은 일본 일초도 하지 않았다 했다가 따로 없습니다.

소리없이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참선으로 돌아가야 좌선이요, 참선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게 이리 저리 갈 것 같을 때, 아무도 망상이라고 하더라도 관여없이, '응, 그래' 그리고 마음이 일어나는 걸 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그 마음이, 여러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래 그래, 그렇체지.' 수많은 의식이 다 마음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데, 지켜보고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그른 것은 그른 것대로 다룰 수 있는 그것이 되게끔 돌아서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자기가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모두가 이 마음 수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처라든가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학생들 모두가, 핵심적인 나부터 돌아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할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누구 말때마다 마음 일어나는 대로 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질을 누가 시켰으며 선행은 누가 시켰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거기 놓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 묻는데 길게 답했지만 우리가 그러한 핵심을 통해서 수행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걸 관해서 지켜 보고 옳은 건 옳은 대로 그른 건 그른대로 쓸 수 있어야 올바르게 다스리는 방법"

금속 아니면 쓰지를 못하듯이 지금 전 세계가 그거 아니면 못 살겠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선양의 원리는 바로 금속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보배요, 그 원리를 내가 한마디 더 한다면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는 것이 마치 지공선이 바탕으로 돼 있으면서 우주를 형성시켰듯이 우리들 몸 자체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없으면 못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을 먹고 사는 반면에 거기에 모든 자력과 원리가, 힘이 주어져 있던 얘깁니다. 지력·통신력·판력·정력 이 네 가지가 모두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단전호흡을 해서 얻는다, 기를 모아가다 넣어서 살아야하느니라'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구요. 모두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기는 내가 만들면서 사는 것이지, 한생각이면 기가 나오고 한생각이면 기가 죽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영동한 생각입니까? 우리 선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중에 단전호흡을 하다가 병이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명상하다가 병이 걸린 사람도 많구요. 왜? 병이 드느냐 하면은 모두 타의에서 구하기 때문이요. 짝은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게다 모든 것을 일임해야 도를 이루고 자기 마음을 발전시키고 이러는데, 이 짝이 판대를 보고서, '아이고! 나 좀 통하게 해

고 풀었다고 그러고요. 정신병이라고 그러고, 또 그 정신병자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식이나 하고 염불이나 하고 그러면 낫는 줄 알구요. 마음으로 생긴 병은 마음으로 다스려야죠. 그래서 일제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몸통이 속에 내 마음의 주인이 없다면 육신은 빈 집이기 때문에 이 영계 저 영계, 이 혼백 저 혼백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모르니 네 집을 가지고도 맘대로 살 수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달려다 맨날 말을 하래서 하기는 하는 데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책을 보고 이해서만이 도를 깨우치는게 아니에요. 못났든 잘났든, 배웠든 못배웠든 내가 지금 한발씩 한발씩 걸어다니는 게 어떤 눈으로 인해서 내가 걸어다니는가를 한번 진실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뉘비리고 다니고 다니는 데 걸음걸이를 걸머지고 다니니까? 그냥 뉘비리고 다니고, 지금 살면서 그렇게 뉘비리고 가고 있는 것이고 정령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걸 보면 이걸 보게 되고 이걸 들으면 이걸 듣게 되고 자기 가게 되면 자기 가게 되고 이 사람이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걸 먹으면 저걸 먹게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까닭에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돌아가는

들의 집착소요, 가만히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생각 한생각하는 게 금입니다. 금! 보배요. 한 생각에 말입니다.

한마음은 끊어진 자리 아닌지요
스님이 한 길을 걸었듯이 그 길을 지금도 걷고 계시듯이 지도 세 생생 그 길을 가겠습니다. 신행요전에 한마음을 이어간다고 하였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서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마음은 끊어진 자리 아닌지요.
예누리 없는 세상에 예누리 없는 진리를 우리가 터득한다면 우리는 자유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기필코 자유권을 얻을 수 있는 공부를 부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여러분한테 일러 주는 겁니다. 그런데 화엄경에, 하얀 경이란 경은 다 합쳐서 팔만대장경을 위로 꿰고, 아래로 꿰고, 외워서 머리로 알고그만 하고 그거를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안 그래요. 알고는 하는 거를 다 놔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천 재지변이 일어나도 우뚝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뚝 일어설 수 있죠. 어느 종교, 어느 종교 말지만 부처님의 뜻과 조사들의 뜻은 각자 자신들이 진리를 참구해야지, 자신의 주체를 믿지 않고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타의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을 믿는다면 또는 타의의 어떠한 신을 믿는다면 이름은 믿는거지나하면 여